

황포돛배 타고 식도락 거리 들러 정자 구경

수천년 남도 역사 속살 유람

<5>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28일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 황포돛배 선착장은 고즈넉했다. 담양 용추봉 아래 응소를 떠나 밤새 광주·나주·함평·무안 등 남도삼백리를 느릿느릿 빙거 흘러온 게 한겨울 탓인지 강을 이불처럼 덮은 물안개는 걸릴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2년 가까이 극심한 찬·반 논쟁에 휩싸였던 준설 작업이 마무리되고 전망 타워가 설치된 승촌·죽산보(汜)라는 명물이 생기는가 하면, 영산강의 옛 정취를 살린 황포돛배가 복원돼 운항하고 있지만 강둑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었다. 황포돛배는 쌀쌀한 강바람을 맞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근 조성된 자전거 길을 질주하는 시민들도 볼 수 없었다.

배를 빌려타고 1시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갔다. 사포·몽탄·구진포·석관정·금강정 나루와 양인이 고국을 떠난 포구인 상대포(上臺浦)와 호남 물자의 집산지였던 영산포도 행하고 한적하기만 했다.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대로라면 정부가 애초 “오는 2012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발생,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장밋빛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지 궁금증이 적지 않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준설과 보 건설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강을 찾는 시·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인 ‘더 나은 강’이 될 수 있도록 강 주변 경관을 복원하고 개발하는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산과 골을 휘돌며 들뜬 곡식을 살찌우고, 문화·예술적 향기를 꽃피우게 했던 ‘남도 젓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강 유역 곳곳에 남아있는 누각, 정자와 포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인공적인 느낌은 덜 나게 하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영산강 살리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대문화 보고차별화해야=전국에 들어서는 16개 보에는 전망타워가 들어서고 주변에는 공원 등 쉼터가 조성된다. 이같은 친환경적인 시설로는 지역민들의 발길을 돌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따라서 개발을 하더라도 규격화된 개발이 아닌, 지역 문화와

역사의 정취가 느껴지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강(129.5km)이 휘도는 광주·나주·담양·장성·영광·화순·함평·무안·영암·목포 등 영산강 유역은 고대문화의 ‘보고’(寶庫)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의 경우 전 세계의 38%가 밀집해 있는 최대 고인돌 분포 지역이기도 하면서 나주시 반남면, 대산리 일대는 국내 유일의 고대복합 묘제 고분 등 대형 옹관고분(甕棺古墳)들이 즐비하다.

유역 일대 고인돌·포구·누정 등 고대 문화 즐비

전남도 “마한문화 재조명 강 개발과정에 담아야”

또 황포돛배가 오르내리던 시기, 삼인과 짐꾼들로 북적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던 포구와 나루터가 수십여개에 이르고 옛날 자연을 벗어난 시인목객들의 풍류와 체취가 스며 있는 누각과 정자도 곳곳에 남아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는 전남에만 현존하는 누정이 600개가 넘는다는 자료를 냈고 전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로 지정된 누정 40개소 중 영산강 유역의 누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역사의 발원지이며 멋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남도 문화가 발현했던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영산강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남도의 문화·예술 담아야=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역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추진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4년까지 모두 226억 7000만원을 투입, ▲영산강 역사 문화 전통길 조성(117억9000만원) ▲나주 영산포 식도락거리 조성(47억4400만원) ▲영산강 정(亭) 문화회랑 조성(61억4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익산청은 영산강 유역 18개소에 나루터를 조성하고 ‘영산강 8경’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 개발과 자전거 도로 조성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영산호 관광지 조성,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을 진행중이며 영산강 유역 8개 시·군과 ‘히스토리 투어’ 사업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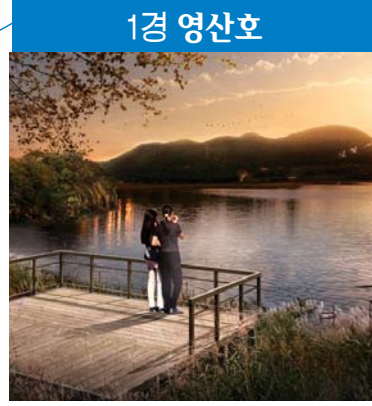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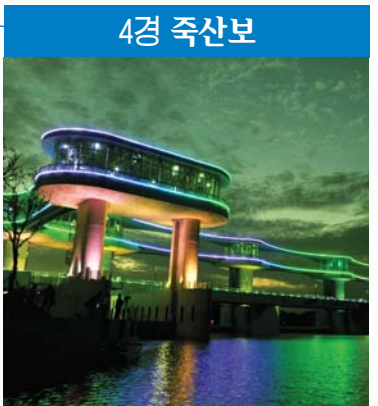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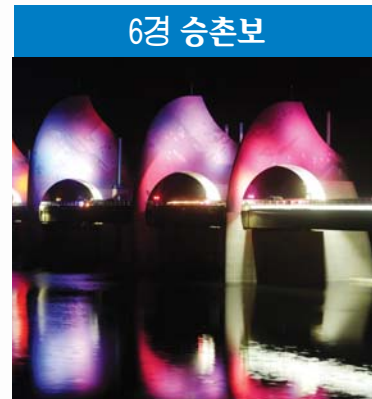
하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역사·문화 자원 개발에 치수와 수질 개선 못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남도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

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산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이라는 1차 목표 외에 질 수 있도록 지역·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e쿠스쿠스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Merry Christmas



쿠스쿠스: 광주수완점
광주신세계점(12월 OPEN)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